

마태복음 13:1-30, 36-43,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가라지를 뿌리는 자

13:1-53절은 세 번째 가르침의 묶음입니다. 이 묶음에는 일곱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 "바닷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1-2) 하신 말씀이 넷이고, "집에 들어가시니"(36), 하고 집에서 하신 말씀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13)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주제를, 그와 비슷한 잘 알려진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는 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잘 알고 있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등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13장에만 모두 10번(11, 19, 24, 31, 33, 38, 44, 45, 47, 52)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비유(比喩) 자체는 단순하고 명백하나, 이를 해설하는 대목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35) 하신 대로 영계(靈界)의 보다 깊은 것을 말씀해주신다는 점입니다. 13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본 문단에서는 도표에 나타난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9, 18-23)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설

둘째 단원(10-17)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셋째 단원(24-30, 36-43)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첫째 단원(1-9, 18-23)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3).

① 비유로 말씀하시는 무대가 어디인가?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1-2), 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12장의 기사는, "회당에 들어가시니"(12:9) 하고 회당(會堂)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12:38, 14)의 반대와 비방에 부딪친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은 바닷가로 나가셔서, 저들이 죄인 취급을 하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②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3)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십니다. ㉠ "더러는 길기에 떨어졌다"(4), ㉡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다"(5), ㉢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7), ㉣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8) 하십니다.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는 청중들은 "그렇지" 하고 공감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③ 아무리 책잡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 하여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는 책잡을 꼬투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고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9) 하고, 여운을 남긴 채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유형의 밭에 속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

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 하고 해설을 해주십시오. 이 해설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10) 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 "씨"는, "천국 말씀"(19상)이요, ㉡ "뿌린다"는 것은 "듣도록"(19, 20, 22, 23)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에 따라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전부가 결실하기를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19), 듣고 깨닫는 자니"(23) 하신 "깨달음"(13)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19) 하십니다.

㉣ 여기 "악한 자", 곧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37) 하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백 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자와, 이를 저지하려고 뿌린 씨를 빼앗으려는 악한 자 간에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고후 4:3-4).

둘째 단원(10-17)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10).

㉠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11)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는 그가 남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허락" 하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자 이를 들으신 주님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16:17) 하고 말씀하십니다.

㉡ 그러므로, "너희 눈은 밝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16) 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 "복 받은 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17)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11:11) 하신 것은, 요한은 선지자들이 사모하던 그분을 본 자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언약의 성취자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을 것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예언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열망했을 것인가? 이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 그러므로 비유의 역할은, "허락된 자",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12)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 현장에서도 목격하게 되는 바입니다. 어떤 분은 잘 알아듣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전해주는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즐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절실할 정도로 경험하게 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셋째 단원(24-30, 36-43)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24).

① 같은 씨 뿌리는 비유이지만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25) 합니다. 앞의 비유는 그 대조점이 씨가 뿌려진 "밭", 즉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가라지 비유의 대조는, ㉠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28)가 대조되어 있고, 무엇을 뿌렸느냐 하는, ㉡ "좋은 씨와 가라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 좋은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전투하는 유형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치명적인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에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3:1-4) 하심이 이를 말씀해줍니다.

②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28-30).

③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보다 "가라지의 비유"를 듣고는 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좋은 씨와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도대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단 말인가? 그 원수는 누구란 말인가? ㉢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넣는다는 추수 때란 언제인가? ㉣ 나 자신은 좋은 씨인가? 가라지일까?

④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36)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밭은 세상이요, ㉢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37-40) 하십니다.

⑤ 이처럼 가라지 비유는 명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38) 하신 이 "씨"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져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씨"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하신 대로 "한 알의 밀"로 오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씨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벧전 1:23) 말씀합니다. 이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⑥ 그렇다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는 점은 자명(自明)해집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는 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점을 갈라디아서는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렘 23:28) 하고, "겨와 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⑦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사역은 궁극적으로는, ㉠ 성령과 악한 영의 사역이요, 이 "영적 전쟁"이란, 진리(좋은 씨)와 비진리(가라지)의, ㉡ "말씀"의 전쟁이

요, 성령과 악령은 각기, ☹ 사역자(사람)를 대리자(代理者)로 세워서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을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보는 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싸운 "선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⑧ 그렇다면 사탄의 사역자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7:15) 하신 자들이 드리납니다. 주님은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12:34)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23:15)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뿌리는 씨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점과,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뿌리는 씨(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해설

① 41-43절은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두 종말을 말씀합니다. ☹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41-42), ☹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43) 하십니다.

②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심지어 교회 내에도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가 됩니다. 형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종래는 "풀무 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된 근원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 이미 선언(창 3:15)하신 바요, 성경역사는 "좋은 씨를 심으려는 자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간의 갈등의 역사인 것입니다.

③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추수군들에게"(30) 하고, "추수 때"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적인 종말을 가리킵니다. 두 부류가 섞여 살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은 추수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이르러서야 두 종말이, "풀무 불에 던짐"을 당하는 자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42-43) 되는 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계시록에서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하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가라지 비유는 "말씀"을 말은 사역자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라지는 아니라 하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약 3:1) 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큰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한, "말의 실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35, 44-58절, 비유로 천국 비밀을 드러내심

요절 :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본 문단에는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곳간" 등 여섯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비유를 관찰해보면 둘씩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2)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50) 하고 답답함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어떤 개념(概念)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요, 이를 바로 받들어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31-35) 겨자씨와 누룩 비유
 둘째 단원(44-46) 보화와 진주 비유
 셋째 단원(47-52) 그물과 곳간 비유
 넷째 단원(53-58)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첫째 단원(31-35)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31).

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임마누엘로 지상에 임한 천국(교회)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크게 확장될 것을 나타냅니다. 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32) 합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② 주님이 이 땅에 뿌린 씨는 "한 알의 밀(요 12:24), 겨자씨"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고전 15:45)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으셨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 22:17-18)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③ 이런 맥락에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32)는 묘사는 그만큼 장성하게 될 것을 나타냄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깃들이는 새"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19) 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결부시켜 "악한 자"로 보는 견해(19)가 있습니다.

④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33) 하십니다. 이 누룩 비유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

게 할 정도로 확장 될 것을 나타낸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리 가운데 남자만이 아니라 부인들도 있음을 보시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남자들이 하는 일(겨자씨)과, 여자들이 하는 일(누룩)을 비유로 드신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아 거짓 교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는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심, 곧 구속사역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도 바로 지금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44-46) 보화와 진주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44) 하십니다.

① 13장의 구성을 보면, 1-35절까지는 "바닷가에 앉으셔서"(1)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36-52절까지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36) 하고,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해설,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물과 곳간 비유" 등은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전도자들이 더욱 경청해야할 부분입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 복음을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 "발견했다(44), 만났다"(45)는 데 있으며 그리하여, ㉢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44, 45) 이를 샀느니라 하십니다.

② 그렇다면 이 보화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3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엡 3:9)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전 2:7) 합니다.

③ 여기서 "보화니, 진주니" 하고 개념(概念)만 말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감추어있던 보화가 무엇이며, 이를 발견한 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내어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추었던 보화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복음의 어떤 부분이 감추어져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로 알고 대적하였으나,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째서 우리에게 "보화"가 된단 말인가?

④ 복음, 복음 하는데, ㉣ 복음이 무엇이기에 기쁜 소식이고 보화나 진주와 같은가?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롬 1:17) 하고 대답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롬 3:21)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숙원이 무엇이었는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에 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롬 3:22), 즉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⑤ 이 보화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전도자란 이를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그의 마지막서신에서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드러내신지라"(딤후 1:9-10) 합니다. "나타났다, 들어내셨다"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 영원부터, ㉡ 하나님 속에, ㉢ 감추어 있던, ㉣ 그리고 이루어 오신 그 비밀이 드디어, ㉤ "나타났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⑥ 그렇다면 "나타나고, 드러내심"으로 자동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해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내가 나타내고, 드러낸 복음을 네가 전해주어야만 하겠다"!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⑦ 이 보화를 만나고 그 가치를 안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7-9) 하고 고백합니다. 형제도 이 보화를 만났고 발견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이 한가지 진주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 6:14)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셋째 단원(47-52) 그물과 곳간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47).

① 천국을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그 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48) 하십니다. 이 그물 비유는 그 의미가 가라지 비유와 상통합니다. ㉠ "좋은 것과, 못된 것", ㉡ "그릇에 담는 것과, 내어버림"이 그것입니다.

② 그런데 두 비유의 중심점이 가라지 비유는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한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으나, 그물 비유는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잡은 후에 선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란 "각종 물고기가 함께 들어 있는 그물"과 같은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49) 하십니다. 이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의인

과, 악인"이라는 언급입니다. 13장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세 번(17, 43, 49)이나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43) 의인들은 누구이고, "풀무 불에 던짐"(50)을 받게 된다는 "악인"은 누구들이란 말인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한,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③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51-52) 하십니다. 이를 "곳간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는 부가적(附加的)인 비유이면서도 결론적(結論的)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11)을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23:34)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결론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한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여 말씀하심으로 마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비밀"의 대목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④ 총 결론에 이르러서 "새 것과 옛 것"이라 칭하심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성경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이 들어있는 곳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구약성경 중 어느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구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立證)할 길이 없고, "신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구약의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권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후 3:14) 하십니다. 수권이 벗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 즉 설교자들이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새 것과 옛 것)을 나눠주어야"(24:45) 할 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51상), 형제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 씨를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여, ㉡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하게 될 것과, ㉣ 전도자란 보화와 진주를 만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종말적인 심판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단원(53-58)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53),

①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54-56),

②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57-58). 그리하여,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14:13) 하고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고향을 떠나시고, 회당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빈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